

1967 CONFESSION

제목 ;

1967년도 신앙포백의
대한 시비점

시일 ; 1966.년 8월 4일

장소 ; 수원농과대학

주체 ; 전국교역자 수양회

강의 ; 마삼각 박사.

인사말

각처에서 목회에 수고하신 교역자 여러분들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무거운 여중 한철도 편히 쉬지 못하시고 이렇게
모여서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노력하심에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이렇게 귀중한 시간에 한국말이 서투른 저에게
가장 중요한 교리문제를 말하게 허락하신 여러분
에게 감사드립니다.

혹 강의도중 이해하지 못할 말이 있어도, 넘어
이해하시고 참으시다가, 회의시간에 말씀하시면
고맙겠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중에서 오해가 있을까 하여
강의를 시작하기전에 먼저 말씀드립니다.

새로운 신앙교백을 설명한다고하여서 웨스트민스트
신앙교백을 좋아하지 아니한다고 오해하지 아니하시
기를 바랍니다.

저는 웨스트민스트를 어릴때에 아꼈다.
한 조복식 아버지 앞에서 말씀하여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교백서중에서 웨스트민스트
신앙교백서를 제일 좋아합니다.

1967년도 신앙고백에 대한 시비 관 세력으로

1. 저는 두시간동안 미국 연합장로교회가 1967년도 신앙고백을 ^{made} 작성한 일에 대하여 말씀하고자 합니다.

2. 1967년도에 인준을 받을 신앙고백서는 미국 연합장로교회가 118회로 멧서추셋스주 보스톤 시에서 1966년 5월 24일 모였든 ^{convention} 총회의에서 '65년도에 ^{and} ~~1965년도에~~ ^{and} ~~합시 통과를~~ 보았던 것을 ^{revised} 많이 수정하고 ^{approved} 보강하여 표결에 부친 결과 단 4표만이 반대표가 있었고 ^{approved} 회원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3. 이 새로운 신앙고백서는 각노회에서 ^{adoption} 동의한후 채택가부를 묻게 될 것입니다

4. 각노회 ⁱⁿ 가결이 끝나면 미국 연합장로교회는 총회산하에 193개 노회와 9,100개의 교회, 12,618 명의 교역자 그리고 ~~12개 이상의 세례 교인과 세례에 참여하는 3,300,000 명에~~ ^{세례 교인} ~~이들이~~ ^가 ~~매년 3억 4백만 불에 달하는 예산을~~ ^가 ~~가리브로서~~ 세계에서 제일 큰 장로교회로서 새로운 신앙고백을 승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5. 이 새로운 신앙고백은 총회가 ^{representing approval} 찬성 결의로 통과한 것을 보아, 각노회가 그대로 승인할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6. 오늘에 한국에 교역자들도 세계 ~~상~~ ^{에서} 제일 큰 장로교회가 사용한 신조를 충분히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교역자로 매우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6 이교파와 한국장로교회의 관계는 1884년 9월에 ^{trace}홀레이스 알렌 박사를 처음으로 한국장로교 선교사로 파송함으로써 오늘날까지 오랜 역사적인 관계를 맺어 오고 있는 점으로 ~~볼~~ 더욱 중요한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7 1967년도 신안고백안을 연구하려고 하면 두개의 문서의 판본이 있습니다. 이 두 판본을 동일시하여도 ^{practical} 아니됩니다. 이 두 판본을 나누어 생각할 때 ~~이~~ ^이 혼란을 피할 수 있습니다.

8 하나는, 수정하지 않은 ^{original} 원안입니다. 1965년도에 나온, 원안이라고 할 수 있는 ~~신안고백은~~ ^{원안} 주도 총회의 한 사람으로 ~~참석하였던 때에 얻어졌습니다.~~ ^{입니다.} ~~이~~ ^이 원안을 통과한 것은 연구를 목적으로 통과한 것입니다.

9 이 원안에는 중요한 점이 있어 신학적으로 다소 자유주의적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한국에서 ^{small} 피평판받고 있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 ^이 이러한 이원문제는 ^{공년에} 해결되었습니다.

10 총회가 신안고백서를 연구하기 위하여 15인 특별 위원회를 구성하여 ^{radical} 철저한 연구를 거듭한 후에 66년 총회에서 ^{수정하지 않은} 원안이 폐기되고 ^{revised} 근본적으로 ^{new} 수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개정판)

11 이 수정안을 보면 15인 특별위원회가 원안에 대한 1,500 이상에 비평을 연구한 후 그것을 수정하고 보강 ^{in print} 했습니다.

하미시 새로운것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새로이 만드려진 신양교백서는 ^{잡도} ~~상당히~~ 보수적이라고 생각할수있습니다. 그러므로 거의 확신하게 ^{연하} 장로교회의 신양교백서가되실 것입니다

3 새로운 신양교백서 에 대하여 •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나누워 간단히 설명하려고 생각합니다.

1. 새 신양교백의 배경. Background
2. 신양교백의 ^{수정하지 않은} 원집. Syllabus of Confessions
3. 1965 년의 ^{원안} 원안. Original - 1965
4. 1965 년의 ^{원안} 원안에 대한 비판. Criticism
5. 1966 년의 수정안. (개정안) Revised Version. 1966
6. 1967 년의 신양교백의 평가. ^{appraisal} 등으로 나누워 생각하겠습니다.

I. 새 신양교백의 배경. Background

14 1958년에 북장로교회와 옛날 연합장로교회(舊)가 합동할 당시에 두교회는 다같이 300편이나 북은 웨스트민스터 신양교백을 사용하였습니다.

^{But both had modified texts} 그리하여 이두교회는 300편이나 오래된 신조어태 수정을가한 보통 설명서를 부쳤습니다.

북장로 교회에서는 1903년에 그렇게 하였고, 연합장로 교회에서는 1925년에 그리하였습니다.

15 그 예를 드러보면 북장로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 신교, 그리고 성령에 관한 조문을 보장한것인 되 이유는

웨스트 민스트 신앙고백에서 이런 문제들에 대하여서는 소홀하거나 부끄럽하게 응용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16 연합장로교회는 웨스트 민스트 신앙고백의 요약이라고 할수있는 전면 ~~서술~~ 새로운 신조를 만드려왔습니다.

17 이것은 마치 한국장로교회가 1907년에 신조를 작성할때에 웨스트 민스트 신앙고백을 그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요약한 12 신조를 만든것과 꼭 같은것입니다.

18 미국 연합장로교회가 1958년 총회가 "요약한 현대적인 신앙고백"을 작성하도록 위원회를 처음 설치한 목적은 북장로교회와 연합장로교회가 웨스트 민스트 신앙고백에 추가하였든 조문들과 수정할 부분이 있는지를 자세히 제검토하게 함으로써 연합한 두교파가 다 만족할수있는 하나의 새로운 신조를 만들게 하려한것이었습니다.

19 신학자들로 구성된 위원들이 양교파에 부과된 조문을 자세히 검토한 결과 그들이 동일하게 느낀것은 오늘에교회가 필요한것은 웨스트 민스트 신앙고백을 요약하는 정도로서 우리들의 교회에 필요한 신조가 아님을 알았습니다.

20 오늘에 우리교회가 가려야할 신조는 불결처럼 ~~새로~~ ^{새도} 하는 20세기 사조에 대결할만한 새로운 신조가 필요함을 알게된것입니다.

새로운 신조에 관한 중요한 이유를 보면 신조가 개혁교의 입장에서든 언제나 성경에 충족하는 것이며 그것은 어느때나 개정되고 수정될수 있다고 생각하는 까닭이었습니다.

신앙고백서의 ^{preliminary draft} 초안/각성의 위촉을 받은 위원들이 새로운 신조를 만드려고 할때 웨스트민스트 신앙고백과 ^{Committee} 신교의 역사적인 신앙고백을 동일하게 ^{Committee} 참고한 점이 었습니다.

1864년 총회에서 위원들의 ^{decision} ^{approve} 상장을 승인함으로써 새로운 신조를 만들수 있게 된것과 웨스트민스트 신앙고백과 ~~역사적인~~ ^{역사적인} 신앙고백서를 ^{basis} 기조로 하여 새로운 신조를 만들기 시작하였습니다.

새로운 신앙고백의 노력한점은 과거교회에 충실하기 위하여 초대교회와 종교개혁시대 그리고 현대교회의 여러 신조들을 ^{collect} 총동원하여 신앙고백의 ^{essentials} 핵심으로 교회에 ^{include} 지침이 되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것 일뿐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현대적인 ^{essentials} 신앙의 ^{include} 진수를 포함하여 현대적인 신학에 ^{meet} 요구를 ^{meet} 채우기위하여서 노력하였습니다. 신조는 단순히 신학에 중요한 문제를 ^{called} 종합하여 기록할 것이 아니라 교회의 생활속에 구체적으로 나타나 그리스도의 ^{concrete} 화해의 사업적 의미를 고백할수있는 신앙고백을 만들고자 한것입니다.

31 간단한 12 신조를 채택하면서 선언하기를 "이리케" 함은 / 장로교 모교회의의 교리적 표준을 버리려 함이 아니오 오히려 찬성함이니 특별히 웨스트민스트 신도개요와 성경 대조 트리문라를 성경 해석의 표준으로 인정하는 입장과 꼭 같은 것입니다.

32 신앙고백 권장에 수록된 7가지 신조에 대하여 각각 한 마디 정도로 ~~이야~~ 논하려 합니다.

33 1) "니케야 신조는" 기독교회가 가장 일찍부터 널리 사용하는 신조로서 주후 4세기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신조의 강조점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라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34 2) "사도 신경"은 부분적으로는 "니케야 신조보다 더 오래 된 것으로서 지금까지 제정된 신조중에서 가장 일반화된 것입니다. 이 신조의 강조점은 복음의 역사적인 사실 ^{강조한 점이}입니다."

35 3) "스콧트렌드 신앙고백" 1560년에 미국 장로교회 모교회의인 스콧트렌드교회가 사용한 처음 신조입니다. 이 교리는 칼빈의 제자인 존 낙스가 만든 것입니다. 이 신조의 강조점은 신교의 특색을 말한 점이 있습니다.

36 4) "제 2 할 베 익 신앙 고백" 이것은 1561년 이루어진 것으로 개혁교 신조중에서 신학적으로 가장 우수한 신조입니다. 이 신조의 강조점은 칼빈

주의력 신학 체계 미아가 설립 신학. 교회. 그리고 가정 생활에 고르게 있는 진술을 가리키게 추가 하였습니다.

37 (5) "하이델버그의 요리문답" 1563년의 구라파의 장로 교회들과 개혁주의 교회들이 가정법이 사용한 신조입니다. 강조한 것은 개인의 신앙을 가랑리 나타내도록 한 점이었습니다.

38 (6)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소요리문답"은 1648년에 만든 것으로 영어를 사용하는 곳에서는 장로 교회들이 가정법이 사용한 신조입니다. 그리브로 한국 장로 교회도 여기에 기초하여 되었습니다.

39 (7) "마르텐 신학 선언" 1943년에 이루어진 것으로 독일 나치즘에 박해를 받은 독일 개혁주의 교회와 루터 교회의 신자들이 독일 나치즘에 저항적인 신앙 고백이 되었습니다.

일분이 한국에서 한 것과 똑같이 히틀러가 독일 교회에 대하여 하나에 국가적인 종교를 강요할 때에 구라파에 용감한 성직자들은 그리스도만이 하나님(대)의 말씀이며 교회의 머리이며 모든 인간의 하나님이라고 주장한 신앙 고백이 되었습니다.

40 이 상의 7가지 신조들이 ~~본~~ ~~현~~ ~~대~~ ~~의~~ ~~인~~ ~~어~~ ~~를~~ ~~이~~ ~~기~~ ~~초~~ ~~로~~ ~~만~~ ~~들~~ ~~어~~ ~~진~~ ~~다~~ ~~는~~ ~~것~~ ~~이~~ ~~는~~ ~~1967~~ ~~년~~ ~~에~~ ~~인~~ ~~준~~ ~~본~~ ~~을~~ ~~역~~ ~~사~~ ~~적~~ ~~인~~ ~~기~~ ~~초~~ ~~로~~ ~~만~~ ~~들~~ ~~어~~ ~~진~~ ~~다~~ ~~는~~ ~~것~~ ~~이~~ ~~는~~ ~~1967~~ ~~년~~ ~~에~~ ~~인~~ ~~준~~ ~~본~~ ~~을~~ ~~역~~ ~~사~~ ~~적~~ ~~인~~ ~~기~~ ~~초~~ ~~로~~ ~~만~~ ~~들~~ ~~어~~ ~~진~~ ~~다~~ ~~는~~ ~~것~~ ~~이~~ ~~는~~ ~~1967~~ ~~년~~ ~~에~~ ~~인~~ ~~준~~ ~~본~~ ~~을~~ ~~역~~ ~~사~~ ~~적~~ ~~인~~ ~~기~~ ~~초~~ ~~로~~ ~~만~~ ~~들~~ ~~어~~ ~~진~~ ~~다~~ ~~는~~ ~~것~~ ~~이~~ ~~는~~ ~~1967~~ ~~년~~ ~~에~~ ~~인~~ ~~준~~ ~~본~~ ~~을~~ ~~역~~ ~~사~~ ~~적~~ ~~인~~ ~~기~~ ~~초~~ ~~로~~ ~~만~~ ~~들~~ ~~어~~ ~~진~~ ~~다~~ ~~는~~ ~~것~~ ~~이~~ ~~는~~ ~~1967~~ ~~년~~ ~~에~~ ~~인~~ ~~준~~ ~~본~~ ~~을~~ ~~역~~ ~~사~~ ~~적~~ ~~인~~ ~~기~~ ~~초~~ ~~로~~ ~~만~~ ~~들~~ ~~어~~ ~~진~~ ~~다~~ ~~는~~ ~~것~~ ~~이~~ ~~는~~ ~~1967~~ ~~년~~ ~~에~~ ~~인~~ ~~준~~ ~~본~~ ~~을~~ ~~역~~ ~~사~~ ~~적~~ ~~인~~ ~~기~~ ~~초~~ ~~로~~ ~~만~~ ~~들~~ ~~어~~ ~~진~~ ~~다~~ ~~는~~ ~~것~~ ~~이~~ ~~는~~ ~~1967~~ ~~년~~ ~~에~~ ~~인~~ ~~준~~ ~~본~~ ~~을~~ ~~역~~ ~~사~~ ~~적~~ ~~인~~ ~~기~~ ~~초~~ ~~로~~ ~~만~~ ~~들~~ ~~어~~ ~~진~~ ~~다~~ ~~는~~ ~~것~~ ~~이~~ ~~는~~ ~~1967~~ ~~년~~ ~~에~~ ~~인~~ ~~준~~ ~~본~~ ~~을~~ ~~역~~ ~~사~~ ~~적~~ ~~인~~ ~~기~~ ~~초~~ ~~로~~ ~~만~~ ~~들~~ ~~어~~ ~~진~~ ~~다~~ ~~는~~ ~~것~~ ~~이~~ ~~는~~ ~~1967~~ ~~년~~ ~~에~~ ~~인~~ ~~준~~ ~~본~~ ~~을~~ ~~역~~ ~~사~~ ~~적~~ ~~인~~ ~~기~~ ~~초~~ ~~로~~ ~~만~~ ~~들~~ ~~어~~ ~~진~~ ~~다~~ ~~는~~ ~~것~~ ~~이~~ ~~는~~ ~~1967~~ ~~년~~ ~~에~~ ~~인~~ ~~준~~ ~~본~~ ~~을~~ ~~역~~ ~~사~~ ~~적~~ ~~인~~ ~~기~~ ~~초~~ ~~로~~ ~~만~~ ~~들~~ ~~어~~ ~~진~~ ~~다~~ ~~는~~ ~~것~~ ~~이~~ ~~는~~ ~~1967~~ ~~년~~ ~~에~~ ~~인~~ ~~준~~ ~~본~~ ~~을~~ ~~역~~ ~~사~~ ~~적~~ ~~인~~ ~~기~~ ~~초~~ ~~로~~ ~~만~~ ~~들~~ ~~어~~ ~~진~~ ~~다~~ ~~는~~ ~~것~~ ~~이~~ ~~는~~ ~~1967~~ ~~년~~ ~~에~~ ~~인~~ ~~준~~ ~~본~~ ~~을~~ ~~역~~ ~~사~~ ~~적~~ ~~인~~ ~~기~~ ~~초~~ ~~로~~ ~~만~~ ~~들~~ ~~어~~ ~~진~~ ~~다~~ ~~는~~ ~~것~~ ~~이~~ ~~는~~ ~~1967~~ ~~년~~ ~~에~~ ~~인~~ ~~준~~ ~~본~~ ~~을~~ ~~역~~ ~~사~~ ~~적~~ ~~인~~ ~~기~~ ~~초~~ ~~로~~ ~~만~~ ~~들~~ ~~어~~ ~~진~~ ~~다~~ ~~는~~ ~~것~~ ~~이~~ ~~는~~ ~~1967~~ ~~년~~ ~~에~~ ~~인~~ ~~준~~ ~~본~~ ~~을~~ ~~역~~ ~~사~~ ~~적~~ ~~인~~ ~~기~~ ~~초~~ ~~로~~ ~~만~~ ~~들~~ ~~어~~ ~~진~~ ~~다~~ ~~는~~ ~~것~~ ~~이~~ ~~는~~ ~~1967~~ ~~년~~ ~~에~~ ~~인~~ ~~준~~ ~~본~~ ~~을~~ ~~역~~ ~~사~~ ~~적~~ ~~인~~ ~~기~~ ~~초~~ ~~로~~ ~~만~~ ~~들~~ ~~어~~ ~~진~~ ~~다~~ ~~는~~ ~~것~~ ~~이~~ ~~는~~ ~~1967~~ ~~년~~ ~~에~~ ~~인~~ ~~준~~ ~~본~~ ~~을~~ ~~역~~ ~~사~~ ~~적~~ ~~인~~ ~~기~~ ~~초~~ ~~로~~ ~~만~~ ~~들~~ ~~어~~ ~~진~~ ~~다~~ ~~는~~ ~~것~~ ~~이~~ ~~는~~ ~~1967~~ ~~년~~ ~~에~~ ~~인~~ ~~준~~ ~~본~~ ~~을~~ ~~역~~ ~~사~~ ~~적~~ ~~인~~ ~~기~~ ~~초~~ ~~로~~ ~~만~~ ~~들~~ ~~어~~ ~~진~~ ~~다~~ ~~는~~ ~~것~~ ~~이~~ ~~는~~ ~~1967~~ ~~년~~ ~~에~~ ~~인~~ ~~준~~ ~~본~~ ~~을~~ ~~역~~ ~~사~~ ~~적~~ ~~인~~ ~~기~~ ~~초~~ ~~로~~ ~~만~~ ~~들~~ ~~어~~ ~~진~~ ~~다~~ ~~는~~ ~~것~~ ~~이~~ ~~는~~ ~~1967~~ ~~년~~ ~~에~~ ~~인~~ ~~준~~ ~~본~~ ~~을~~ ~~역~~ ~~사~~ ~~적~~ ~~인~~ ~~기~~ ~~초~~ ~~로~~ ~~만~~ ~~들~~ ~~어~~ ~~진~~ ~~다~~ ~~는~~ ~~것~~ ~~이~~ ~~는~~ ~~1967~~ ~~년~~ ~~에~~ ~~인~~ ~~준~~ ~~본~~ ~~을~~ ~~역~~ ~~사~~ ~~적~~ ~~인~~ ~~기~~ ~~초~~ ~~로~~ ~~만~~ ~~들~~ ~~어~~ ~~진~~ ~~다~~ ~~는~~ ~~것~~ ~~이~~ ~~는~~ ~~1967~~ ~~년~~ ~~에~~ ~~인~~ ~~준~~ ~~본~~ ~~을~~ ~~역~~ ~~사~~ ~~적~~ ~~인~~ ~~기~~ ~~초~~ ~~로~~ ~~만~~ ~~들~~ ~~어~~ ~~진~~ ~~다~~ ~~는~~ ~~것~~ ~~이~~ ~~는~~ ~~1967~~ ~~년~~ ~~에~~ ~~인~~ ~~준~~ ~~본~~ ~~을~~ ~~역~~ ~~사~~ ~~적~~ ~~인~~ ~~기~~ ~~초~~ ~~로~~ ~~만~~ ~~들~~ ~~어~~ ~~진~~ ~~다~~ ~~는~~ ~~것~~ ~~이~~ ~~는~~ ~~1967~~ ~~년~~ ~~에~~ ~~인~~ ~~준~~ ~~본~~ ~~을~~ ~~역~~ ~~사~~ ~~적~~ ~~인~~ ~~기~~ ~~초~~ ~~로~~ ~~만~~ ~~들~~ ~~어~~ ~~진~~ ~~다~~ ~~는~~ ~~것~~ ~~이~~ ~~는~~ ~~1967~~ ~~년~~ ~~에~~ ~~인~~ ~~준~~ ~~본~~ ~~을~~ ~~역~~ ~~사~~ ~~적~~ ~~인~~ ~~기~~ ~~초~~ ~~로~~ ~~만~~ ~~들~~ ~~어~~ ~~진~~ ~~다~~ ~~는~~ ~~것~~ ~~이~~ ~~는~~ ~~1967~~ ~~년~~ ~~에~~ ~~인~~ ~~준~~ ~~본~~ ~~을~~ ~~역~~ ~~사~~ ~~적~~ ~~인~~ ~~기~~ ~~초~~ ~~로~~ ~~만~~ ~~들~~ ~~어~~ ~~진~~ ~~다~~ ~~는~~ ~~것~~ ~~이~~ ~~는~~ ~~1967~~ ~~년~~ ~~에~~ ~~인~~ ~~준~~ ~~본~~ ~~을~~ ~~역~~ ~~사~~ ~~적~~ ~~인~~ ~~기~~ ~~초~~ ~~로~~ ~~만~~ ~~들~~ ~~어~~ ~~진~~ ~~다~~ ~~는~~ ~~것~~ ~~이~~ ~~는~~ ~~1967~~ ~~년~~ ~~에~~ ~~인~~ ~~준~~ ~~본~~ ~~을~~ ~~역~~ ~~사~~ ~~적~~ ~~인~~ ~~기~~ ~~초~~ ~~로~~ ~~만~~ ~~들~~ ~~어~~ ~~진~~ ~~다~~ ~~는~~ ~~것~~ ~~이~~ ~~는~~ ~~1967~~ ~~년~~ ~~에~~ ~~인~~ ~~준~~ ~~본~~ ~~을~~ ~~역~~ ~~사~~ ~~적~~ ~~인~~ ~~기~~ ~~초~~ ~~로~~ ~~만~~ ~~들~~ ~~어~~ ~~진~~ ~~다~~ ~~는~~ ~~것~~ ~~이~~ ~~는~~ ~~1967~~ ~~년~~ ~~에~~ ~~인~~ ~~준~~ ~~본~~ ~~을~~ ~~역~~ ~~사~~ ~~적~~ ~~인~~ ~~기~~ ~~초~~ ~~로~~ ~~만~~ ~~들~~ ~~어~~ ~~진~~ ~~다~~ ~~는~~ ~~것~~ ~~이~~ ~~는~~ ~~1967~~ ~~년~~ ~~에~~ ~~인~~ ~~준~~ ~~본~~ ~~을~~ ~~역~~ ~~사~~ ~~적~~ ~~인~~ ~~기~~ ~~초~~ ~~로~~ ~~만~~ ~~들~~ ~~어~~ ~~진~~ ~~다~~ ~~는~~ ~~것~~ ~~이~~ ~~는~~ ~~1967~~ ~~년~~ ~~에~~ ~~인~~ ~~준~~ ~~본~~ ~~을~~ ~~역~~ ~~사~~ ~~적~~ ~~인~~ ~~기~~ ~~초~~ ~~로~~ ~~만~~ ~~들~~ ~~어~~ ~~진~~ ~~다~~ ~~는~~ ~~것~~ ~~이~~ ~~는~~ ~~1967~~ ~~년~~ ~~에~~ ~~인~~ ~~준~~ ~~본~~ ~~을~~ ~~역~~ ~~사~~ ~~적~~ ~~인~~ ~~기~~ ~~초~~ ~~로~~ ~~만~~ ~~들~~ ~~어~~ ~~진~~ ~~다~~ ~~는~~ ~~것~~ ~~이~~ ~~는~~ ~~1967~~ ~~년~~ ~~에~~ ~~인~~ ~~준~~ ~~본~~ ~~을~~ ~~역~~ ~~사~~ ~~적~~ ~~인~~ ~~기~~ ~~초~~ ~~로~~ ~~만~~ ~~들~~ ~~어~~ ~~진~~ ~~다~~ ~~는~~ ~~것~~ ~~이~~ ~~는~~ ~~1967~~ ~~년~~ ~~에~~ ~~인~~ ~~준~~ ~~본~~ ~~을~~ ~~역~~ ~~사~~ ~~적~~ ~~인~~ ~~기~~ ~~초~~ ~~로~~ ~~만~~ ~~들~~ ~~어~~ ~~진~~ ~~다~~ ~~는~~ ~~것~~ ~~이~~ ~~는~~ ~~1967~~ ~~년~~ ~~에~~ ~~인~~ ~~준~~ ~~본~~ ~~을~~ ~~역~~ ~~사~~ ~~적~~ ~~인~~ ~~기~~ ~~초~~ ~~로~~ ~~만~~ ~~들~~ ~~어~~ ~~진~~ ~~다~~ ~~는~~ ~~것~~ ~~이~~ ~~는~~ ~~1967~~ ~~년~~ ~~에~~ ~~인~~ ~~준~~ ~~본~~ ~~을~~ ~~역~~ ~~사~~ ~~적~~ ~~인~~ ~~기~~ ~~초~~ ~~로~~ ~~만~~ ~~들~~ ~~어~~ ~~진~~ ~~다~~ ~~는~~ ~~것~~ ~~이~~ ~~는~~ ~~1967~~ ~~년~~ ~~에~~ ~~인~~ ~~준~~ ~~본~~ ~~을~~ ~~역~~ ~~사~~ ~~적~~ ~~인~~ ~~기~~ ~~초~~ ~~로~~ ~~만~~ ~~들~~ ~~어~~ ~~진~~ ~~다~~ ~~는~~ ~~것~~ ~~이~~ ~~는~~ ~~1967~~ ~~년~~ ~~에~~ ~~인~~ ~~준~~ ~~본~~ ~~을~~ ~~역~~ ~~사~~ ~~적~~ ~~인~~ ~~기~~ ~~초~~ ~~로~~ ~~만~~ ~~들~~ ~~어~~ ~~진~~ ~~다~~ ~~는~~ ~~것~~ ~~이~~ ~~는~~ ~~1967~~ ~~년~~ ~~에~~ ~~인~~ ~~준~~ ~~본~~ ~~을~~ ~~역~~ ~~사~~ ~~적~~ ~~인~~ ~~기~~ ~~초~~ ~~로~~ ~~만~~ ~~들~~ ~~어~~ ~~진~~ ~~다~~ ~~는~~ ~~것~~ ~~이~~ ~~는~~ ~~1967~~ ~~년~~ ~~에~~ ~~인~~ ~~준~~ ~~본~~ ~~을~~ ~~역~~ ~~사~~ ~~적~~ ~~인~~ ~~기~~ ~~초~~ ~~로~~ ~~만~~ ~~들~~ ~~어~~ ~~진~~ ~~다~~ ~~는~~ ~~것~~ ~~이~~ ~~는~~ ~~1967~~ ~~년~~ ~~에~~ ~~인~~ ~~준~~ ~~본~~ ~~을~~ ~~역~~ ~~사~~ ~~적~~ ~~인~~ ~~기~~ ~~초~~ ~~로~~ ~~만~~ ~~들~~ ~~어~~ ~~진~~ ~~다~~ ~~는~~ ~~것~~ ~~이~~ ~~는~~ ~~1967~~ ~~년~~ ~~에~~ ~~인~~ ~~준~~ ~~본~~ ~~을~~ ~~역~~ ~~사~~ ~~적~~ ~~인~~ ~~기~~ ~~초~~ ~~로~~ ~~만~~ ~~들~~ ~~어~~ ~~진~~ ~~다~~ ~~는~~ ~~것~~ ~~이~~ ~~는~~ ~~1967~~ ~~년~~ ~~에~~ ~~인~~ ~~준~~ ~~본~~ ~~을~~ ~~역~~ ~~사~~ ~~적~~ ~~인~~ ~~기~~ ~~초~~ ~~로~~ ~~만~~ ~~들~~ ~~어~~ ~~진~~ ~~다~~ ~~는~~ ~~것~~ ~~이~~ ~~는~~ ~~1967~~ ~~년~~ ~~에~~ ~~인~~ ~~준~~ ~~본~~ ~~을~~ ~~역~~ ~~사~~ ~~적~~ ~~인~~ ~~기~~ ~~초~~ ~~로~~ ~~만~~ ~~들~~ ~~어~~ ~~진~~ ~~다~~ ~~는~~ ~~것~~ ~~이~~ ~~는~~ ~~1967~~ ~~년~~ ~~에~~ ~~인~~ ~~준~~ ~~본~~ ~~을~~ ~~역~~ ~~사~~ ~~적~~ ~~인~~ ~~기~~ ~~초~~ ~~로~~ ~~만~~ ~~들~~ ~~어~~ ~~진~~ ~~다~~ ~~는~~ ~~것~~ ~~이~~ ~~는~~ ~~1967~~ ~~년~~ ~~에~~ ~~인~~ ~~준~~ ~~본~~ ~~을~~ ~~역~~ ~~사~~ ~~적~~ ~~인~~ ~~기~~ ~~초~~ ~~로~~ ~~만~~ ~~들~~ ~~어~~ ~~진~~ ~~다~~ ~~는~~ ~~것~~ ~~이~~ ~~는~~ ~~1967~~ ~~년~~ ~~에~~ ~~인~~ ~~준~~ ~~본~~ ~~을~~ ~~역~~ ~~사~~ ~~적~~ ~~인~~ ~~기~~ ~~초~~ ~~로~~ ~~만~~ ~~들~~ ~~어~~ ~~진~~ ~~다~~ ~~는~~ ~~것~~ ~~이~~ ~~는~~ ~~1967~~ ~~년~~ ~~에~~ ~~인~~ ~~준~~ ~~본~~ ~~을~~ ~~역~~ ~~사~~ ~~적~~ ~~인~~ ~~기~~ ~~초~~ ~~로~~ ~~만~~ ~~들~~ ~~어~~ ~~진~~ ~~다~~ ~~는~~ ~~것~~ ~~이~~ ~~는~~ ~~1967~~ ~~년~~ ~~에~~ ~~인~~ ~~준~~ ~~본~~ ~~을~~ ~~역~~ ~~사~~ ~~적~~ ~~인~~ ~~기~~ ~~초~~ ~~로~~ ~~만~~ ~~들~~ ~~어~~ ~~진~~ ~~다~~ ~~는~~ ~~것~~ ~~이~~ ~~는~~ ~~1967~~ ~~년~~ ~~에~~ ~~인~~ ~~준~~ ~~본~~ ~~을~~ ~~역~~ ~~사~~ ~~적~~ ~~인~~ ~~기~~ ~~초~~ ~~로~~ ~~만~~ ~~들~~ ~~어~~ ~~진~~ ~~다~~ ~~는~~ ~~것~~ ~~이~~ ~~는~~ ~~1967~~ ~~년~~ ~~에~~ ~~인~~ ~~준~~ ~~본~~ ~~을~~ ~~역~~ ~~사~~ ~~적~~ ~~인~~ ~~기~~ ~~초~~ ~~로~~ ~~만~~ ~~들~~ ~~어~~ ~~진~~ ~~다~~ ~~는~~ ~~것~~ ~~이~~ ~~는~~ ~~1967~~ ~~년~~ ~~에~~ ~~인~~ ~~준~~ ~~본~~ ~~을~~ ~~역~~ ~~사~~ ~~적~~ ~~인~~ ~~기~~ ~~초~~ ~~로~~ ~~만~~ ~~들~~ ~~어~~ ~~진~~ ~~다~~ ~~는~~ ~~것~~ ~~이~~ ~~는~~ ~~1967~~ ~~년~~ ~~에~~ ~~인~~ ~~준~~ ~~본~~ ~~을~~ ~~역~~ ~~사~~ ~~적~~ ~~인~~ ~~기~~ ~~초~~ ~~로~~ ~~만~~ ~~들~~ ~~어~~ ~~진~~ ~~다~~ ~~는~~ ~~것~~ ~~이~~ ~~는~~ ~~1967~~ ~~년~~ ~~에~~ ~~인~~ ~~준~~ ~~본~~ ~~을~~ ~~역~~ ~~사~~ ~~적~~ ~~인~~ ~~기~~ ~~초~~ ~~로~~ ~~만~~ ~~들~~ ~~어~~ ~~진~~ ~~다~~ ~~는~~ ~~것~~ ~~이~~ ~~는~~ ~~1967~~ ~~년~~ ~~에~~ ~~인~~ ~~준~~ ~~본~~ ~~을~~ ~~역~~ ~~사~~ ~~적~~ ~~인~~ ~~기~~ ~~초~~ ~~로~~ ~~만~~ ~~들~~ ~~어~~ ~~진~~ ~~다~~ ~~는~~ ~~것~~ ~~이~~ ~~는~~ ~~1967~~ ~~년~~ ~~에~~ ~~인~~ ~~준~~ ~~본~~ ~~을~~ ~~역~~ ~~사~~ ~~적~~ ~~인~~ ~~기~~ ~~초~~ ~~로~~ ~~만~~ ~~들~~ ~~어~~ ~~진~~ ~~다~~ ~~는~~ ~~것~~ ~~이~~ ~~는~~ ~~1967~~ ~~년~~ ~~에~~ ~~인~~ ~~준~~ ~~본~~ ~~을~~ ~~역~~ ~~사~~ ~~적~~ ~~인~~ ~~기~~ ~~초~~ ~~로~~ ~~만~~ ~~들~~ ~~어~~ ~~진~~ ~~다~~ ~~는~~ ~~것~~ ~~이~~ ~~는~~ ~~1967~~ ~~년~~ ~~에~~ ~~인~~ ~~준~~ ~~본~~ ~~을~~ ~~역~~ ~~사~~ ~~적~~ ~~인~~ ~~기~~ ~~초~~ ~~로~~ ~~만~~ ~~들~~ ~~어~~ ~~진~~ ~~다~~ ~~는~~ ~~것~~ ~~이~~ ~~는~~ ~~1967~~ ~~년~~ ~~에~~ ~~인~~ ~~준~~ ~~본~~ ~~을~~ ~~역~~ ~~사~~ ~~적~~ ~~인~~ ~~기~~ ~~초~~ ~~로~~ ~~만~~ ~~들~~ ~~어~~ ~~진~~ ~~다~~ ~~는~~ ~~것~~ ~~이~~ ~~는~~ ~~1967~~ ~~년~~ ~~에~~ ~~인~~ ~~준~~ ~~본~~ ~~을~~ ~~역~~ ~~사~~ ~~적~~ ~~인~~ ~~기~~ ~~초~~ ~~로~~ ~~만~~ ~~들~~ ~~어~~ ~~진~~ ~~다~~ ~~는~~ ~~것~~ ~~이~~ ~~는~~ ~~1967~~ ~~년~~ ~~에~~ ~~인~~ ~~준~~ ~~본~~ ~~을~~ ~~역~~ ~~사~~ ~~적~~ ~~인~~ ~~기~~ ~~초~~ ~~로~~ ~~만~~ ~~들~~ ~~어~~ ~~진~~ ~~다~~ ~~는~~ ~~것~~ ~~이~~ ~~는~~ ~~1967~~ ~~년~~ ~~에~~ ~~인~~ ~~준~~ ~~본~~ ~~을~~ ~~역~~ ~~사~~ ~~적~~ ~~인~~ ~~기~~ ~~초~~ ~~로~~ ~~만~~ ~~들~~ ~~어~~ ~~진~~ ~~다~~ ~~는~~ ~~것~~ ~~이~~ ~~는~~ ~~1967~~ ~~년~~ ~~에~~ ~~인~~ ~~준~~ ~~본~~ ~~을~~ ~~역~~ ~~사~~ ~~적~~ ~~인~~ ~~기~~ ~~초~~ ~~로~~ ~~만~~ ~~들~~ ~~어~~ ~~진~~ ~~다~~ ~~는~~ ~~것~~ ~~이~~ ~~는~~ ~~1967~~ ~~년~~ ~~에~~ ~~인~~ ~~준~~ ~~본~~ ~~을~~ ~~역~~ ~~사~~ ~~적~~ ~~인~~ ~~기~~ ~~초~~ ~~로~~ ~~만~~ ~~들~~ ~~어~~ ~~진~~ ~~다~~ ~~는~~ ~~것~~ ~~이~~ ~~는~~ ~~1967~~ ~~년~~ ~~에~~ ~~인~~ ~~준~~ ~~본~~ ~~을~~ ~~역~~ ~~사~~ ~~적~~ ~~인~~ ~~기~~ ~~초~~ ~~로~~ ~~만~~ ~~들~~ ~~어~~ ~~진~~ ~~다~~ ~~는~~ ~~것~~ ~~이~~ ~~는~~ ~~1967~~ ~~년~~ ~~에~~ ~~인~~ ~~준~~ ~~본~~ ~~을~~ ~~역~~ ~~사~~ ~~적~~ ~~인~~ ~~기~~ ~~초~~ ~~로~~ ~~만~~ ~~들~~ ~~어~~ ~~진~~ ~~다~~ ~~는~~ ~~것~~ ~~이~~ ~~는~~ ~~1967~~ ~~년~~ ~~에~~ ~~인~~ ~~준~~ ~~본~~ ~~을~~ ~~역~~ ~~사~~ ~~적~~ ~~인~~ ~~기~~ ~~초~~ ~~로~~ ~~만~~ ~~들~~ ~~어~~ ~~진~~ ~~다~~ ~~는~~ ~~것~~ ~~이~~ ~~는~~ ~~1967~~ ~~년~~ ~~에~~ ~~인~~ ~~준~~ ~~본~~ ~~을~~ ~~역~~ ~~사~~ ~~적~~ ~~인~~ ~~기~~ ~~초~~ ~~로~~ ~~만~~ ~~들~~ ~~어~~ ~~진~~ ~~다~~ ~~는~~ ~~것~~ ~~이~~ ~~는~~ ~~1967~~ ~~년~~ ~~에~~ ~~인~~ ~~준~~ ~~본~~ ~~을~~ ~~역~~ ~~사~~ ~~적~~ ~~인~~ ~~기~~ ~~초~~ ~~로~~ ~~만~~ ~~들~~ ~~어~~ ~~진~~ ~~다~~ ~~는~~ ~~것~~ ~~이~~ ~~는~~ ~~1967~~ ~~년~~ ~~에~~ ~~인~~ ~~준~~ ~~본~~ ~~을~~ ~~역~~ ~~사~~ ~~적~~ ~~인~~ ~~기~~ ~~초~~ ~~로~~ ~~만~~ ~~들~~ ~~어~~ ~~진~~ ~~다~~ ~~는~~ ~~것~~ ~~이~~ ~~는~~ ~~1967~~ ~~년~~ ~~에~~ ~~인~~ ~~준~~ ~~본~~ ~~을~~ ~~역~~ ~~사~~ ~~적~~ ~~인~~ ~~기~~ ~~초~~ ~~로~~ ~~만~~ ~~들~~ ~~어~~ ~~진~~ ~~다~~ ~~는~~ ~~것~~ ~~이~~ ~~는~~ ~~1967~~ ~~년~~ ~~에~~ ~~인~~ ~~준~~ ~~본~~ ~~을~~ ~~역~~ ~~사~~ ~~적~~ ~~인~~ ~~기~~ ~~초~~ ~~로~~

Ⅲ. 1965년에 ~~가결된~~ 신앙고백의 처음 제안.

41

이제 말씀 드리는 것은, 1965년 신앙고백
기초 위원회가 65년 총회에 ~~총회에~~ 제출하되
신앙고백입니다.

이들이 제출한 제안의 ^{핵심} 명칭을 "1967년도
신앙고백"이라고 한 이유는 교회의 신조를 개정
하려고 할 때는 최소한 3년간의 세차례 이성
도의회 후 결의를 받아야 하는 교회의 법을 지켜야
하기 까닭입니다.

이 신앙고백이 65년도에 아무수정이 없이
총회에나 가결되었다고 하여도 66년도 총회에나
재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승인 받은 것을 가지고
각 노회가 승인을 얻어야 하는지 노회는 67년 이전
은 보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42

새 신앙고백의 중심이란 신학적 주제는
"화해" 라는 것입니다.

43

초대 교회의 신조의 주제는 "성경" ~~과 같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인 구속주의
중심을 두어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였습니다.

44

그다음 신조는 구속주의에서 그리스도의
사역에 중점을 두었고 종교개혁 당시에는
구속주의 방편에 ~~중~~ 중점을 둔 것과 같이 새 신조에
는 구속주의에 선물을 해석함에 있어 성경적으로
시대적으로 의미 깊은 술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화해라는" 용어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고린도후서 5장 18절 이하에 말과 같이 성경적인 동시에 또한 오늘과같이 슬프게도 분열되고 쪼개어지는 세계에 있어서 큰 의미를 가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46 새 신앙 고백의 전문은 네 부분으로 나누워 생각할 수 있습니다.

- 1. 서문. 2. 제 1부. 하나님과 화해의 사업.
 - 3. 제 2부. 화해의 사업. 4. 제 3부. 화해의 성취로
- 나누워 간단히 ~~설명~~ 말씀하겠습니다.

1. 서문

47 서문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세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① 교회는 시대를 따라서 그 신앙을 새롭게 고백하여야 한다 그러나 모든 고백과 신조들은 필립 송속적인 표준에 지나지 아니하며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증거하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 ~~이 아니다.~~ 이라고 하는 점 이요.

48 ② 사도의 일체와 그리스도의 품위에 대한 역사적 교리들이 기독교 신앙에 토대를 이루며 그 구조를 결정한다는 점 이요.

49 ③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지신과 화해 시키신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시라고 하는 점이 중요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가장 명백한 진술인 것 ~~입니다.~~ 원안에

2. 제 일부. 하나님의 화해의 사업.

50 이부분은 제안된 ^{취안의} 신앙 고백 ~~중~~ ^중에서 제일 의논이
~~많은~~ 부분입니다.

51 ~~이~~ 문제 중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위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는 성경에 관한 것입니다.

52 우리는 이론적 하는 문제가 매우 정통적인 삼위일체
론의 형식을 ~~이해하려~~ ^{이해하려} ~~못함~~ ^{못함}으로 큰 문제가 되었 ~~하나~~ ^{하나} 한 줄입니다.
삼위일체의 형식을 이해하면 큰 문제가 없을 줄입니다.

제일장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인간은
죄인으로, 예수님은 구주로 설명하였습니다.

제 2 장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 시라고 이룸하였고
제 3 장에서는 "성령의 교통을" 알하였는 ~~데~~ ^데 여기에서
는 그리스도인의 새 생활과 성경에 대하여 가르
쳐 하였습니다.

성경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인간에게 계시하
실 때에 쓰시는 방편이라고 하였습니다.

53 가장 많은 논쟁에 대상이 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술은 다음과 같은 말로 시작되었습니다.

"나사렛 예수 안에서 참 인간성은 결정적인
한 번으로 실현되었다. 팔레스테와 한 유대인인
예수는 그의 동쪽 가운데서 사셨고 그들의 관공과
시행과 기쁨과 슬픔을 같이 당하였다." 라고 하였을 때

54 이같이 참된 인간성을 강조한 이후에 그 고백은
계속하여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고, "메시아와 주"

또한 모든 사람의 구주 그리고 "모든 사람의 심판자"임을 분명히 말하였습니다.

55 구원의 사역에 대하여서는 성경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의 행동" 또는 한 ^{scripture} 제사. 한 대속물. 한 번 대신 ~~할~~ 드린 만족. 등으로 말하였습니다.

56 더욱 분명하게 말한것은 "이런것들은 어떤 이룩으로도 도달할수가 없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내포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리를 ~~말~~ 다만 표상하는것들에 불과하다"고 말하였습니다.

3. 제이부 화해의 사역.

57 일부는 교리적 신학적 문제들을 취급하였고, 일부는 윤리적 실제적 문제를 취급하여 교회가 지닌 화해적 사명과 사명달성에 필요한 문제 (장비)를 말하였습니다.

58 이문제를 취급하는데 있어서 아름답고 힘있는 표현을 볼수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사명의 표현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하였습니다.

59 그리스도가 한 인간으로의 삶은 교회로 하여금 인류의 공동생활에 참여하게 한다 교회로 하여금 인류에 대한 봉사는 인류에 대한 온갖 복지를 위해 일하게 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교회로 하여금 인간의 모든 고난에 대하여 예리하고 민감하게 만든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사회 문제를 특이하게 진술한 것은 공적인 신앙고백으로
처음이 되었습니다.

사회의 세가지 큰 문제인 ①. 종족분열, ②. 전쟁,

③ 빈곤에 관하여 말한 것입니다.

즉 종족분열, 전쟁, 빈곤에 대하여 기독교적 행동을
주저하는 단체나 개인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며
신앙을 배반하는 것이라고" 새 신앙고백은 대담하고도
논쟁적인 이론을 말하였습니다.

4. 제 3부 화해의 성취.

3부에서는 종말론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항조를
파괴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현재와 미래에 있어서
하나님의 승리라고 하였습니다.

혹 여러분 중에서 한두 분이라도 잘못 이해하시는 분이
있을까 하여 다시 말합니다. ^{수행하지 아니함} 이제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신앙고백서의 처음 반은 ^{수행하지 아니함} 시원안임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이원안은 ^{것을} 새 남동 교수가 번역한 한영대조판이
있으며 새로이 수정한 ~~것을 번역한~~ ~~이상을 목사에게~~ ~~이상은~~
목사의 ~~번역이~~ ~~여러분이~~ ~~가리신~~ ~~것~~ ~~임~~ ~~니~~ ~~다~~.

신앙고백의 ~~초안~~ 원안이 동과를 보았던 그회의
에 저가 총대로 ^한 ~~한~~ ~~번~~ ~~역~~ ~~하~~ ~~였~~ ~~을~~ ~~니~~ ~~다~~.

이 회의는 ^{Ohio} 오하이오주 콜럼버스시에서 모이였을
니다.

2. 둘째 강점은 신앙표현이 옛날 어체로 있던것을 현대의 어체로 표현하려고 노력한 점이였습니다.
 신앙고백의 목적은 성경의 뜻을 보다 명백하게 깨닫게 하는데 있습니다.
 만일 옛날말이 그 의미를 애매하게 한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수정되어야 할것입니다.
웨스트민스트 신앙고백이 작성된후 300년동안 영어가 많이 변경된 이유이라고 생각합니다.

3. 셋째 강점은 성경의 큰 표현에하나인 화해 교리를 재 강조한것입니다.
 새 신앙고백의 중심주제에는 옛 신앙고백을 약하게 만들거나 이단적인 사상은 하나도 없습니다.
 화해교리는 사도 바울이 가르치대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성취하신것이 바로 화해의 사실입니다.

4. 네째 강점은 그리스도의 신.인양성을 삼기하게 한점입니다.
 옛날 단일신론의 사상이 예수의 신성을 부인하였으며 근대적 단일신론의 사상은 예수의 신성만을 강조하여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5. 다섯째 강점은 교회는 개인의 신령한 생활만이 아니라 성경 안에서 사회문제에 대하여 발언하고 관심을 갖도록 강조한점이였습니다.
 완전한 복음은 천국과 구원에 대하여서 뿐만 아니라

헌법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책임을 행하는 것이라
하는 점이 옳습니다.

Ⅴ. ^{수정하지 않는} 원안에 대한 비평.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원안이 비평을 받아야 할 중요한 약점들이 있습니다.

이 원안을 비평한 것을 검토하여 수정하여 총회에
제출한 15인 위원회에 보고에 의하면 이 원안에 대하여
부러 1,500 통이나 되는 비평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중에 두 가지는 한국에 있는 연합감로교 선교부가
보낸 것이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선교부는 원안을 연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조직하고 연구하여 총회에 건의하였습
니다.

영구위원이 저를 위원장으로서 65년 12월 15일에
총회에 공안을 보내어 다음 두 가지 점이 수정대리
아니하면 받아드릴 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 ①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문제와이고.
- ② 성경의 권위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첫째. 문제에 대하여 우리의 주장은 원안에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하기를 "교황레스틴의 한
유대인^라라는 것을 지적하여 그리스도의 인성을
그릇되히 기나리게 강조하였으므로 틀 바른 신조가

대려면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는 점이 있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신앙고백은 적당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사리요이 되었고" 예수는 "아들이신 하나님" 이시라고 분명히 말하여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둘째 성경에 대하여 우리가 주장한 것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여야 하며 원안에 말한바 모직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발트 ~~신학~~ 신학적 여향을 반대하였습니다.

성경에 대한 원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하나님의 충분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성육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시며 그에 관하여 성경은 여러가지로 증거합니다. 이 계시에 대표적인 증언으로서 교회는 구약과 신약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성서로 인정하였다. ... 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에게는 너무나 약하게 보였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에 대한 원안에 수정을 다음과 같이 요구하였습니다.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리스도에 대한 유일하고 권위있는 증언" 이라고 분명히 할 것을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영감에 관한 문체에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사람이 었다는 주를 달도록 요청하였음과 또한 성경을 이해하는데는 역사적인 비평과

문서 비평학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비평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을 이해하는 것은 학자들만이 아니라
무식한 사람의 심령에도 성경이 말씀하셔서 그
생각과 마음을 밝혀줌으로써 가능하다는 것을 믿기
까 합니다.

이것 외에도 간음장을 통해서 제 이차적인
문제에 대한 우리의 의견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원안서} 비평한 것은 수천명의 표역자들과 성도들의
관심을 받았읍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쉽게 하기 위하여 67년도
신앙고백의 ^{수정하지 않은} 원안중에서 크게 문제가 되는 다섯가리를
추려서 말씀 하겠읍니다.

1.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고백서는 그리스도의 인성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그의 신성을 소홀히 한점에 대하여 비평을 받았읍니다
우리는 이에 대하여 비평하기를 "만일 우리가
참 사람이신 동시에 참 하라하신 ~~분령~~ 구주를 분명히
나타내지 못하면 이 비라 밤을 세상에서 우리가 전할
것 세리가 없읍니다 라고 ~~말하도 못하는~~ ^{우리는} 말하였읍니다

2. 성경에 관한 교리 문제입니다.

원안에서 성경에 대한 견해는 변역하며 발트릭인
사상으로 성경을 하나에 기록된 문서로 생각 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를 분리하고 있는 잘못에 대하여
우리는 반대하였읍니다.

~~이원론~~ 새로운 교백서의 기록된 말씀인 성경과
도성인신하신 말씀을 내포하는 ~~성령~~ ^{말씀}의 권위를 바르게
증거할 ~~것~~ ^수 ~~것~~ ^있 ~~는~~ ~~것~~ ^만 ~~일~~ ^뿐 ~~이~~ ~~다~~ ^고 ~~희~~ ~~망~~ ^을 ~~강~~ ~~화~~ ~~하~~ ~~는~~ ~~데~~ ^에 ~~유~~ ~~익~~ ~~을~~ ~~줄~~ ~~것~~ ^을
입니다. 그 이유는 ~~말씀~~ ^{예수}과 성경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였읍니다.

3. 만인 구원론의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이 새 신앙 교백서에서 만인 구원론을 채택하
다고 하여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만인 구원 사상은 세계가 망하여 가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을 것이고 영원한 멸망을 받을
사람은 하나도 없으리라는 주장입니다.

수령하지 않은 원안 에 보면 "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의 구주이시다.
그리고 " 부활하신 주로부터 생명을 받아 드림이 곧 영생
소유하는 일이며 그로부터 생명을 거부하는 일이 곧
죽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지는 일이라고 하였읍니다
이 두 번째 구절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은 마치 버려 받았던
사람이 마귀는 구원을 받은다는 뜻을 내포한 뜻이
표거기에서 "영원히"라 말을 배^내었음으로. 이런 비평을
받게 된 것 입니다.

4.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응답의 문제입니다

원안 에 보면 인간이 하나님과 화해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의 응답하여 회개하고 믿음을 가져다
 하는 문제에 대하여 소홀하게 취급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적인 교리대신에 사회문제 ^{만이} ~~에 대한~~ 중요 관심에
 대상이 된 것이 있습니다.

5. 사회에서 화해 문제입니다.

이 고백서 중 끝으로 지적하려는 것은 사회에 대하여
 지나치게 독단적이고 그 문제가 신학적 기초에 있어서는
 비교적 소극적이었습니다.

특히 종교문제, 전쟁, 빈곤의 세가지 문제만을
 크게 취급하는 반면 개인의 도덕이나 부흥에 관하여서는
 별말이 없다는 약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상에 관한 문제 까닭에 신앙고백의 원안은
~~상대를 받은 채 물러났음이라.~~ 시정하려는 강력한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 원안을 시정하기 위하여 새로운 단체가 조직
 되었습니다. 그 단체의 이름은 "성령적 신앙고백을
 위한 강로교인의 연합회"라는 것입니다.

이 단체의 유능한 지도자의 한 사람은 프리스턴
 신학교 교장이었던 존 ^{MACKAY} 맥케이 박사였습니다.

총회는 전국 교회가 원안의 수정을 요구하는 전국교회
 위원회를 받아드리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15인 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구 수정한 것을 66년도 총회에 제출하여
 만장일치에 가결을 얻은 것입니다.

수정하여 성경은 "유일하고 권위있는 증언이며 성경은 다른 여러 증언들 중에서 한 증언이 아니고 그 유례가 없는 증언 중 하나 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구약과 신약 ~~중~~ ^{within} 속에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신앙과 순종에 양육(자람)을 받^는 예언적 사도적 증언이라고 하였습니다.

원안에서는, 들^{omit}지 아니하였던 성경의 영감에 대하여서 "성경은 성경의 인도 아래서 주어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새 신조에서는 성경의 최고 권위성을 충분히 인정하였습니다.

67년도 신앙고백의 성경적 교리에 있어서는 웨스트민스트 신앙고백과 같은 세밀하고 위풍이 당당한 기술은 하지 못하였을지라도 경교도들과 스코트랜드의 성직자들이 선언하였던 위대한 고백의 진수를 그 ^{bring into line} 속에 내포하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트 신앙고백은 성경에 최고 권위를 인정하여 말하기를 "성경은 유일 무오한 신앙과 행위의 규칙이라고 하였으나, 67년도 수정안의 신앙고백은 성경은 "유일하고 권위있는 증언이며... 유례가 없는 증언이며...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에 의하여 교회의 신앙과 순종이 동계된다."고 말하였^을다.

3. 만민구원론의 부재입니다.

만민 구원론의 이단을 배격하기 위하여 원안에서 애매하였던 두개의 구절을 수정하였습니다.

"성경적 신앙고백을 위한 강로 교인의 연합회"는 발표하기를 "우리들이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라 요구하였던 중요한 문제는 다 수정 되었 다고" 하였읍니다. 이 발표를 6월호 "뉴스 레터" ^{라는 주간 지에} 말하기를 "우리는 선한 양심으로 노회가 수정된 67년도 신앙고백을 통과시킬 것을 권장하여 교회의 사명에 ~~새로운~~ 새로운 변화와 확장을 위하여 우리 교단이 이 고백서를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하였읍니다.

그러나 제가 성경적 관점에서 ^{이것도} 신앙고백서를 완전한 신조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제가 이 신조를 더 수정 할 수 있다고 하면 신학적으로 몇가지를 더 수정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저는 새로운 신앙고백서를 받아 들일 수 있으며 고백서에 부족한점은 이 신앙고백서 ^가 기초하여 있는 옛날 다른 신조에 드러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신앙고백은 성경적인 고백이며, 삼위일체적인 고백이며 그리고 이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방도)임을 지적 하였읍니다.

그러하여 미국 교회는 새로운 신앙고백에 대하여 여러가지 문제가 다 해결 되었읍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에는 이것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수정~~ 해결 하는 방법이 몇가지 있는 줄 생각합니다.

1. 한국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을 이해하도록 노력하는 데 있습니다.

새신앙 고백은 미국 사람의 구미에 맞게 만드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한국 교회 ~~의~~ 특별한 사항을 고려하지 아니하는 것은 한국 ~~의~~ 특색을 제대로 서는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2. 한국에서 비평하는 방법은 두 가지라고 생각하였습니다. ① 수정대리 아니란 원안을 비평하는 특이 있고. ② 새신앙 고백에는 예전, ~~주~~ 문제가 드러있지 아니 하라는 비평이 있습니다.

이러한 비평에 대응하는 것은 쉽게 답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것은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67년도 새신앙 고백은 마치 큰 잔에 티끌이 들어 있는 것 같이 큰 잔에 새로운 기들을 더한 것이라 하고 생각하면 해결 얻을 줄 생각합니다.

이러한 한국 교회 ~~의~~ 신조는 웨스트민스터의 것만 있지 아니하고 성경에 있는 것 같이 새신조가 반드시 신약의 기초가 없어야 한다고 성경에 있습니다.

새신조를 받은 이유는 새신앙 고백의 이단이 아니므로 우리를 받을 수 있고 특색한 것은 다른 신앙 고백에 15-16년 전의 영성권에서 갖도록 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남북으로 갈라져 수십년을 지나는 동안
우리의 쓰라린 고통은 형언하기 어려웠습니다.
이 나라에 통일이 이루어져서 성탄절이 축하되고 반가운
동포들이 서로 만나 하나같이 영광 돌리는 날이 꼭히 오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신학 과정을 통하여 세계 선교화
문제를 만히 연구하신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중대한
사명을 느끼시면서 포문을 내내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아름다운 세계 선교화 문제에 관하여 얼마나 자신을
가지셨습니까? 하는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기
를 바라는 마음으로 도한 간절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주된 목적은 언제나 어디에서나
선교하는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학을 전공하시고 포문을
내내시게 되신 여러분의 제일 중요한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학업을 마치 못하여 눈동하지 않고 패역하여 죄를
짓고 회개할 줄 모으며 멸망으로 내리러가는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알게 하는 것이 꼭 여러분의 사명임을
다시 강조하는 바입니다.

이 세계에는 수많은 ~~부족한~~ 인류들이 살고 있습니다
저물죽이신 하나님을 알게 못하여 어지사장이신 그리스도
를 우리 인류를 위하여 죽어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인류가 많습니다 동족과 선물을 간주하시며 고난과

^{the whole}
 초심으로 우리 인간 전체를 구원하신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fact} 오늘 이 선학교문을 나서시는 여러분들의 가장
 중대한 과업이라 아니할지 않습니까 선교사 함은 멀리 처소에
 나가서 천도하는 일만을 위하여는 결코 안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교회들이 헌금을 하고 모금운동을 이끄러서 선교사들을
 각국에 보내어 선교사업을 해야 그것이 선교라고 생각 합니다
 물론 그것은 해야 합니다 이제 선교화를 위하여 보다 더 많은
 선교사를 각국에 보내야 합니다 여기에서는 확실히 말씀
 하셨습니다 " 너희는 가서 내 이름으로 제국을 얻으라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 고 하셨습니다

이세계에 그리스도 복음이 완전히 전파될 때
 비해서 온 인류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랑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일을 누가
 해야 하겠습니까? 교회를 위하여, 사회를 위하여, 국가를
 위하여, 민족신고를 위하여 오늘 이 선학교문을 나서시는
 여러분 각자가 선교사가 되셔야 하겠습니까

^{sin distant mercies}
 죄악과 불신과 무차별과 부도덕한 모든 인간 사회에
 선교를 해야 할 분은 꼭 여러분인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대장이십니다 그리스도
 께서는 여러분에게 총진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군령이 되신 여러분은 이 진로 명령에 순종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나라에, 여러분 사회에, 여러분 이웃에, 여러
 분 가정에 보내진 그리스도의 선교사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나라 ^{every place} ~~방방곡곡~~ 어디든지
 선교가 되어 있습니까? 이 나라 모든 국민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감사합니까? 주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나라 국민 거의가 하나님의 사랑에
 반항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
 충성드린 신교자가 될 요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있습니까?
 교회는 곧 사회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선교입니다. 우리 기독교회는
 곧 온 인간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선교입니다. 교회는 곧 온
 세계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선교입니다 이 땅위에 그리스도
 의 천국을 건설 하려면 우리는 곧 교회에 충성 드려야
 역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구원의
 사명을 주시기였고 아들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으셨기 때문에 도장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세상에 오셨으며 온 인류를 사랑
 하셨기 때문에 나무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그가 죽으심으로
 인하여 오늘날 우리는 멸망에서 영생에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이 아니며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이 구원에 증인이며 충성 드려야
 선교자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 하나님의 사랑을 아취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지를 만드라 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성~~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온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사랑을 표현하신 말씀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연수가 되었으며 마침내 온 열매를 맺을수 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바와 같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 주는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한 구원은 그 사랑을 십자가에 달려 죽어 하나님으로 우리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신다고 결론하였습니다 그러서 그리스도께서는 무조건 사랑과 겸손으로 하나님 영광에 복종 하셨습니다

교회의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든 인간에게 함께 하신것입니다. 선교의 출발점도 역시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으로 시작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선교의 사랑을 앞에 두고 그리스도의 정은은 소위 하느님 선교 사업 즉 전도 사업을 위하여 동감한 출발을 하려야 하것을니다. 선교는 도명에 의한것이거나 성령의 감화에 의한 것이거나를 막론하고 무조건 순종이요 사랑인 것을 여러분은 다시 한번 확고하게 기록하십시오.

이제 우리에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랑에 문명이 전쟁, 공황, 야만성, 후회, 가난, 기근, 좌절 이모든 결과를 조성한다고 생각합니다. 인류사회에 모든 문명은 인류에게 안일한 생활을 주기 보다는 마침내 전쟁과 공포를 조성하여 인류사회를 질망과 멸망에로 이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긴박한 시기에 지혜있는 모든 인간들을 구원여로 이끌기화 위한 빛은 선교 사업은 그리스도인애 해야 할 일이 동시에

오늘 졸업하시고 이 학교를 나가시는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여러분은 이 노명의식을 확실히 가지셔야 하며 나가서
실천에 옮기셔야 하겠습니다.

공산주의 신봉자들은 공산주의 신앙을 실천하기
위하여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귀중한 자기
생명까지를 쉽게 희생합니다. 그리드도의 증인된 바울
선생은 그리드의 구원의 진리를 선포하기 위하여 자기
한몸의 행복이나 안위를 모두 희생했으며 온일생을
바쳤습니다.

선교사가 된 우리들의 첫째 과제는 그리드도를 증거
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우리 기독교인에게 못습니다.
기독교인은 무엇을 하느냐? 우리 공산주의자들을 토지
개혁을 이룩하였고 경제 정책을 확립하였으며 봉건
제도를 타파하여 섬기려는 인간사회의 건설 하였노라고
허위 선전을 공산주의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공산주의는 모든 인간을 공포와 빈곤과 기근 등으로 몰고가고
있으며 인간에 모든 행복을 짓밟고 있습니다. 저중여러분
에게 주어진 과제는 공산주의 독에서 신음하는 인간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드도의 구원으로 인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모두가 선교사가 되셔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둘째 과제는 섬기는 일입니다. 『빌립보 2장
6절 7절』을 보면 바울이 말하기를 "그는 본분하남님의
분재에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셨으므로 여기지

설교

청년 면려회 헌신예배

성경 따라 5장 14-16

이제 읽은 성경말씀으로 ~~말씀~~ 생각할 제목은 기독청년의 의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시며 등경우에 있는 등불처럼 모든
집안사람에게 빛취라 이와같이 너희 빛을 사람앞에 빛취게하여, 저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하라,
하엿음이다. 오직 너희~~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하라
하는것이 문제 될시다

I 첫째 너희는 세상에 빛이라 하신말씀을 생각해 봅시다

동서양에 어떠한 사람이라도 그리스도의 빛을받는 사람은 빛을 빛취여라,
착한 행실을 보이라는 것이올시다. 다시말하자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것이 올시다. 세상은 악함이라 악한세상에 착한행실이 요구될것이고
세상은 어둡습니다. 어두운세상에는 밝은 빛이 요구될것임이다. 이요구에 대하여 일할사람은

해야될

누구였음까지 이것은 오직 우리 기독교청년들의 할 일이며 기독교청년에서 이루어
 하겠음이다. 하루에 낮과 밤이 있으며 날마다 춘추동 사시가 있습니다. 이와같이
 한시에도 낮과 밤이 있는 것이 올시다. 20세기 문명이 최고도로 발달한 금일은—
 어디 속할지가 19세기 말엽부터 20세기 초기까지에 걸쳐서, 전 세계를 위협하는
 전제적 제국주의 흑암의 시대는, 민주적 자유주의에 굴복한지 벌써 유구한 시일을
 지났으니 지금은 낮과 밤이 교환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권적 독재
 제국주의로 부터, 민주적 자유주의로 사상이 이동되는 대-순환기인 것입니다.
 이러한 순환기에 와서 가장 대적이 되는 것이 또 하나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무엇일지나.
 유물적 사회주의 올시다. 이것이 급진적으로 발달한 결과로, 현대인의 사조를
 좌우로 나누어서, 귀중한 인격들도 물질의 노예가 되게 하였음이다. 또는
 자유를 박탈하고 독제와 강제로 탄압하여 인생의 생지육을 만드는
 공산주의 철의 장막이 올시다. 여기에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권리를 부인함이다.
 이렇게 어두운 곳에는 빛되는 기독교청년들을 기다리며 산과 골속에서 기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자유주의 국가에는 불량한 자유가 범람하여, 사회 연락 방항 도적
 살인 상상승배 같은 비양심적 생활하는 사람들도 많읍니다. 이러한 좌악세상에도
 기독교 청년들의 빛이 요구될 것이올시다. 우리는 이러한 악하고 어두운 세상을 무대로
 하여, 진리로서 히극 비극을 연출하리 희물을 높이 들고 갈길 못차저 애쓰는 사람들을
 인도해야 하겠읍니다. 또한 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에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였음으로
 우리 기독교 청년들은 선봉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빛을 빛취어 주어야 합니다.
 본문 16절에는 너희가 빛을 사람앞에 빛취게하라 하였되 이는 에베소 5장
 8절에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나니라" 하였읍니다.
 그러므로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빛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헌신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 청년들의 할 일이며 의무올시다. 나는 한국 청년들의 신앙을
 조호를 암니다 마는 그행실은 때 때로 칭찬 못할 사실은 늦기고 있읍니다 세상 사람은

4

우리 믿는 이치도 모르고 자기도 모른다 성부 성자 성신이 누구인지 모른다
다만 우리들의 행동 곳 빛을 보고 우리 예수교회가 조흔지 안되는지 알게 됩니다
나는 한국에 처음왔을때에 한국 국회의원중에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빛을보이지 못하고 외국 밀수품
판계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교회의 명예를 손상케 한것이 매우 섭섭하였읍니다
II 두재로 생각할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의무입니다

장노교 헌법 오리문답에 보면 사람의 제일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것이라 했읍니다
그럼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어 하는데 혹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욕을 돌리고 걱정과 염여를 돌리고
있읍니다. 외박하면 진실하지 못해서 그릇읍니다. 예수님은 무조건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머리에 가시관과 양손 양발에 못을 박고 위굴에 칼을 다자 십자가에서
우리대신에 죽었읍니다. 이것을 알면서 었지 단다시 두번 세번 주님머리와
손과 발에 상처를 일일수 있읍니다. 예수님은 우리대신 죽으셨으니 우리는 날마다
그를 기뻐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일에만 몸뚱이 헌신하기 바랍니다
또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의 착한행실 곳 빛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합니다

결말로 말하자면 기독교인은 새삼에 빛이 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일에
의무를 갖고 몸뚱이라 헌신하시라는 것이 을시다. 기도하십시오

희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희망은 값싼 것이 아니다

본문 : 누가복음 23 : 26-28, 33- 34, 39-43

마 삼락 박사

1. 신약성서에는 부활이 없는 희망도 없다. 그러나 소망은 부활을 기다리는 것만 하는 것을 아니었다. 십자가 없는 희망도 없다. 희망은 고난의 와중에서 시작된다. ~~이제 누가복음에 기록된 대로 십자가에 달리십에 대하여 무엇을 이야기 하고 있는가 하는 조명 아래서 소망과 고난에 대하여 세 가지 점을 말해 보려 한다.~~

십자가의 처음 사실은 고난이지 희망의 아니다. 누가복음 23 : 26을 읽으면 아래와 같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대아 시골에서 돌아 보고 있는 구레네의 시몬을 붙잡아 예수의 뒤에서 그에게 십자가를 메고 가도록 하였다. --- 수많은 군중이 예수를 따랐고 울부짖고 그를 위해 애통하는 여인들도 따라갔다. 그러나 예수는 그들에게 향하여 말씀하셨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 자신을 위하여 울라"

영어로 씌어진 한국에 관한 ~~4가지~~ 리코의 소설중에 하나는 리차드 김 (김 은국) 씨가 쓴 순교자 야마. ~~이 소설이 한국 순교자의 참 정신을 파악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이 소설은 북한의 수도인 평양에서 시작된다. (이곳은 나의 고향이기도 하다) 이 도시는 진격하는 유엔군의 손에 탈환되었다. 한국군은 한때는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였지만 이제는 외형만 남아있는 중앙 장로교회와 ~~대학~~에다 정보국을 세웠다. 이 책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한국군 정보 장교인데 그는 북한 공산군이 식도력 피난하기 직전에 14명의 기독교 목사들을 ~~돌려싸서~~ 그들중 12명을 싸아 죽이고 두 사람을 감옥에 처넣는 ~~때~~ 목사가 평양이 탈환되었을 때 출옥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결론적으로~~ 이 소설은 아래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추구하는 내용이다 1) 어째서 두명만 살아남게 되었나? 2) 열두명의 순교자에게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나. 그러나 보다 심각한 질문이 그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는 도라 마속에 ~~짜여져~~ 들어와 있다.

젊은 정보 장교는 이 심각한 질문을 말로 표현한 최초의 사람이다. 그는 두 생존자를 발견하게 된다. 그들중에 한 사람은 그가 받은 고통 때문에 정신이 나가 있었다. 다른 한사람은 움푹 패인 얼굴에 열기 있는 눈을 지닌 사람으로 심하게 기침을 하고 있었다. 생존자들은 자기를 왜 남겨졌는지 다른 열두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다고 말한다. 그 장교는 그들을 의심한다. 더욱이 그는 기독교 신자가 아니다. 그러나 그가 자기 앞에서 있는 두 사람을 보았을 때 그리고 삼척당한 열두사람을 생각했을 때 생생하게 기억되는 전쟁의 공포가 그의 마음속을 섬광처럼 ~~내달렸고~~ 규정의

물결이 그를 휩쓸었다. 그는 심문을 끝내고 그곳을 떠나려고 한다. 그러다
달고 멈추어서서 마지막으로 주저하듯이 한가지 질문을 던진다. "당신의
하나님은 --- ~~부성들의 고난을 알고 계신가요?~~"

~~바로 이것이~~ 이 협의리가 논의하고자 ~~하는 모든 것이~~
와닐까. 인간은 모두 같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가? 인간은 생명과 평화와
정의와 진리를 위하여 몸부림친다. 그러나 그가 성공했다 해도, 생은 고난이
요 평화는 환상이며 정의는 명목이다. 진리에 대하여 ~~세계의~~ 대부분의 마치
빌라도가 그랬던것 처럼 "진리가 무엇기냐" 라고 지금도 묻고 있다.

그 소설은 분명한 ~~대답을 주지 않는다.~~ 장교는 "당신의
하나님은 ~~부성들의 고통을 알고 있는가요?~~ 라고 묻는다. 그리고 ~~음독 들어간~~
~~눈을 지닌~~ 그 목사는 아직도 자기 자신의 고통에 ~~합하여~~ ~~침묵중이다.~~

아마도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 ~~의~~ ~~신앙하는~~ 것이다. 즉 고통을
~~침묵 가운데~~ 운명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고통에 대하여 아무런 합리적 설명이
없는 바로 이 사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 ~~의~~ ~~주제~~ ~~하는~~ 것이다.
시몬이 순진하고 무식한 사람으로 그가 십자가를 ~~지었다.~~

여자가 울부짖었을 때 예수께서 돌이키사 말씀하셨다. "왜 슬라렘
의 아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 자신을 위해 울어라" ~~왜?~~ 그들은 무엇을
했단 말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다. 그러나 인간의 투쟁이
그 고통을 의미한다는 사실에 대한 아무런 행위도 없다. 그것이 첫째 고통이다.
그러나 아시아는 그 사실을 환기시킬 필요는 없다. 이 대륙은 다른 어떤
대륙보다도 더 ~~인간적인~~ 고통과 결부되어 있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져있다.
일본의 경우 동경 대지진에서부터 히로시마의 원폭을 들수 있겠고 인도네시아
와 그 주변 바다에 널려 있는 여력섬들에 있어는 역사상 가장 큰 화산 폭발
재난이 있었다. 인도의 경우는 어떨까? 나는 칼카다끄 거리를 걸으면서
인간의 고통을 느낄수 있었다. 중국에서는 1년전 북경 북방지역에 굉장한 지진
이 일어나서 백만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었다. 그러나 세계는 이에 대하여
거의 관심을 표명하지 않았다. 아시아는 저 멀리 있었다. 고통은 인간이
자연물 거슬릴 때보다도 인간과 인간끼리 대항하여 싸울 때 더욱 더 ~~심각한~~
것이 되고 있다. 예를 들면 "가진자들은" "못 가진자"와 대립된다.

세계상 30여개의 가난한 나라들은 내가 압력으로 동남아시아로부터 중앙
아프리카엔 걸치는 광대한 ~~가난의 지배에~~ ~~나타~~ ~~있다.~~ 아시아에만도 ~~다문~~ 경우
11센트로 살아야하는 사람들이 2억4천5백만이나 된다. 11센트 ~~보다~~ 2억4천
5백만 인구는 미국 전국에 살고 있는 사람보다 더 많은 수이다. 이 모두가
하루 11센트로 산다면 한달에 3달러 40센트가 되는 셈이다. ~~더우가~~ 정의와
평화를 위한 투쟁 ~~예~~ 오는 고통이 있다. 이곳 한국은 곧 독립을 수호하기

위하여 287회에 이르는 ~~큰~~ 침략에 대항하여 지금까지 싸워왔다.
 전쟁은 계속되었고 평화는 거의 없었다. 그러나 모든 것 중에 가장 심각한
 고통은 진리를 위한 인간의 투쟁이 ~~가운데 있다~~. 나는 진리라고 예수께서
 말씀을 하셨고, 그분이 없는 곳에는 죽음에 이르는 병인 영혼의 병이 있다.
 아시아 사람들은 그 이유를 알지 못하나 그들 거의 모두가 고통을 당한다.
 그 이유는 ~~취약도~~ ~~숫적으로~~ ~~말한다해도~~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인들이 적은
 대륙이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예수가 말씀하신다 그러나 그분은 단지
 예루살렘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크리고~~ 아시아에 대해서만도
 아니고 전 세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다. ---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자신을 위해 울라 ---" 거기에는 ~~위로도~~
 없고 ~~희망도~~ 없다. ~~이것이~~ ~~모든~~ 생명이 고된 것이고 인간의 투쟁은 인간의 고통을
 의미한다는 것을 괴롭게도 확인시키고 있을 뿐이다.

11. 그러나 본문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만일에 십자가의
~~침묵~~ 사실이 고통이라면, 두번째의 사실은 우리가 홀로 고통을 당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고통 당하신다.

누가복음 23 : 32 - 35을 읽으면

" 두 사람의 죄다른 죄수가 그와함께 죽음을 당하려고 끌려
 갔다. 그들이 해골이라고 부르는 곳에 이르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두 죄수중 한 사람은 오른쪽, 한
 사람은 왼쪽편으로 십자가에 못 박았다.
 군중들은 서서 구경하고 있었다. "

나는 ~~아시아의~~ 고난에 관하여 이야기 하여 왔다. 십자가는 인간의
 고난을 이야기 하지만 그 이상의 것을 말한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고통을
 말해준다. ~~이것이~~ ~~기독교~~ 정신으로 여과될때 ~~아시아의~~ 고통으로부터 ~~십자가의~~
 의미에 대한 가장 날카로운 현대적인 통찰이 나와야 한다는 것은 특별히
~~적절하다고~~ 나는 생각한다. 나는 일본 신학자 가조 기다모리와 그의 저서
 "하나님의 고통의 신학"에 대하여 언급코저 한다. 기다모리는 인간의 고난
 백후에 있는 고통을 ~~추천한다~~. 십자가위에서의 ~~예수가~~ 당한 육체적인
 고통을 넘어 ~~하나님의~~ ~~바로~~ 그 심정에 까지 이르러 한다, 그는 감히 ~~말~~
~~한다~~. "고통은 하나님의 본질이다" ~~물론~~ 그는 스스로 ~~비판한다~~. 그는 초대
 교회의 이단인 성부 순환설을 주장한다고 비난을 받아 왔다. 거기에 대해
 그는 스스로를 잘 ~~방어한다~~, 그러나 내가 더욱 더 고통의 신학을 읽고 그것을

성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와 비교해 볼 수록, 사랑은 고통보다 하나님의 본질에 더 가까이 있지 않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된다. 혹시 정의는 고통보다 하나님의 물질에 더 가까이 있지 않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권세와 진리도 고통보다 하나님의 본질에 더 가까이 있지 않는 것이 아닐까
그러나 기따모리는 기독교의 소망이 결코 ~~광선같이~~ ^{희망이} ~~아니~~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환기시켜 주는 점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옳다. 십자가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의 달콤한 사랑의 감상적인 예증을 ~~될~~ 수가 없다.

십자가는 고뇌다. 그것은 위압받는 사람과의 일체감을 말하는 혁명적인 모델이 될 수는 없다. 그 고뇌속에서 예수께서는 자기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두 강도중 한 사람에게만 희망을 보여 주었다.

우리 ~~투쟁을~~ ^{투쟁을} 언제나 하나님의 투쟁이 될 수는 없다. 십자가는 ~~슬로건~~ ^{슬로건} 으로 바꿔 칠 수는 없다. 하나님의 고통은 ~~물~~ ^물 그것보다 훨씬 깊다. 그분의 고통은 탐의 고통이나 정치 체제의 고통이나간에 모든 고통을 포함하지 않는 그렇다 고 육체적도 아니요 정치적도 아니다. 기따모리에 의하면은 하나님의 고통은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은 사랑하기 위하여, 죄를 미워하지만 죄인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갚고 계신 대가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옳고 그름을, 정의와 불의를 구분짓는 선을 지워버리지 않은 채로 용서하기 위하여 그분이 지불하시는 대가이다. 구원하기 위하여 그분이 갚으시는 댓가는 그분의 아들을 죽게 했고, 그 고통속에서 그분의 사랑과 분노가 합류되었다. "왜냐하면, 고통은 그분의 분노를 삼켜 버리는 행동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홀로 고통당하지 않는다.

111.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그곳에 우리의 희망이 있다. 십자가의 세번째 사실은 우리의 희망이 하나님 한분에게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의 투쟁속에 있는것도 아니요, 그분이 고통속에도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그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속에 희망이 있다. 거기에 대해서 나는, 개혁 신학자를 삼기시킬 필요가 없으리라, 본문속에서 읽어보자 :
죄인중 한사람이 예수에게로 향하였다 (누가복음 23 : 42 - 43) :

"그가. 예수여 당신의 사자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말하라.
예수께서 그에게 말하였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가 임금과 함께 있을 때에 얼마나 희망은 빠르게 작동하는가!
우리의 고통중에서라도 소망은 즉시 활동하기 시작한다. "오늘"이라는 말에 주의하자.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며 권세와 희망의 물결이 우리의 고통속에서 우리를 들어 올린다.

1919년에 일어난 한국 독립운동은 현대에 있어서 불의에 대항하는 가장 활발하고 대규모적인 시위였다. 기독교인들중 이운동에 참가한 사람들인 역할은 그 운동이 비폭력적인 되게 한 것이었고 기독교인들이 그 운동을 주도했다. 그러나, 이 운동은 식민지 점령 정부의 군대에 의하여 무자비하게 깨어졌다. 그 지도자중 한사람은 ○의 총무이며, 뛰어난 기독교인이며 애국자인 이상재 선생이었다. 그는 일본 경찰에 의하여 모질게 고문을 당하였다. "누가 이 운동의 우두머리냐, 너는 알고 있나" "그렇다" 그는 대답하였다. 그들은 조랑이처럼 그에게 달려 들었다. "누구냐 우리에게 말하라. 누가 삼일운동의 주모자냐".

그는 조용히 대답하였다. "하나님께서 최고의 주모자 이시고, 이천만 한국민중이 그 뒤에 늘어서 있다" 그러나 우리 투쟁이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단 말인가, 더 의상 희망이 없는가?

그분은 우리 투쟁에 동참하신다. 그렇다. 그러나 때로 더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홀로 그들을 당할 때,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이다, 한 나이든 성도가 중병에 걸렸을 때 젊은 친구가 방문하였다. "당신은 무척 고생이 심하군요, 매우 안되었습니다." 라고 그 젊은 여인은 도움을 줄까 해서 말했다. "예", 그러나 보세요! 하며 그 나이든 여자는 두손을 꺼내면서 말했다. "손에 손톱이 없습니다. 그분이 그 손톱을 가지셨습니다. 그러기에 나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그녀는 다시 자기의 머리를 가리켰다. "내 머리에 왕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왕관을 쓰셨으니 나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희망은 어디에 있는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고난 당하신 하나님에게 희망이 있다. 십자가가 없으면 희망도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누가 능히 우리를 대적할 수가 있겠는가.

